

강만수 재정 “건설사 자금 차입 정부가 보증”

‘민간차입제’ 활성화... 재정 지출로 성장동력 확보 필요

추경편성 필요성 시사... 다른나라 비해 금리 너무 높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전통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동력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시 공사기간을 단기기 위해 민간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민간차입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에 대해서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더러 금리

격차도 크다”고 진단했고, 환율 문제는 “상품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수지 개선 문제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최근 우리경제 현안 및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경기와 관련해 “모든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사정이 어렵고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면서 “유가, 서비스수지 적자도 부담이고, 최근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단기외채, 총외채 모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5조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 처리와 관련해 강 장관은 “지역의 세계잉여금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것으로 감세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세금을 환급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하면서 성장동력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민

간부문을 위축시킨 것을 펴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수위 시절 논의된 민간차입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민간차입제도는 사업기간이 긴 SOC 등의 건설시 정부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 책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담당 건설업체가 예산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을 차입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차입에 따른 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한미간) 금리 격차도 2.75%까지 벌어졌다”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는 “환율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존재할 때 시장이 건전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율이 계속 떨어져야 시장이 형성되는 하향 메카니즘 시스템이 구축돼 왔다”면서 “그런 시장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세금을 더 빼앗아오고, 규제를 통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민영화가 지연되는데 대해 그는 “정부가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여건 때문”이라며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운하 컨소시엄 내달 사업제안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성을 검토중인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제출이 빠르면 5월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정부의 여론수렴절차는 빨라야 6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5월말쯤 경우론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이날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1개월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부운하의 세부적인 노선과 사업성 검토는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다만 한강과 낙동강 물길을 잇는 조령산맥 구간 공사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령산맥 구간 공사에 대해 “한반도대운하연구회측이 제시한 터널방식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스카이라인방식을 놓고 고민중”이라면서 “터널방식은 추가적인 댐 건설에 따른 수몰 지역 발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조원을 상회하는 사업비를 끌어 채취 사업권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부운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경부운하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위해 전문영역을 발주했으며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체 6-10위로 구성된 SK컨소시엄도 사업제안서를 빠른 시일내 제출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금융업 진출 문턱 낮아진다

금융위, 금산분리 이어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한 데 이어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만들 때 갖춰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제인들은 “금융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준이 획일적”이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설업체와 조선업체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와 부채비율의 성격이 다르다”며 “조선업은 특성상 선순금 지급 비중이 높아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현금 자산 등을 감안하면 재무구조는 다른 산업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산업 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이므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보다 낮은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요건을 완화할 경우 조선, 해운, 항공, 건설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2008 한국국제보세·시계전시회'의 주얼리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시계와 보석 등을 선보이고 있다.

금융질서 문란자 처벌 강화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주주·임원 제한 등

내년부터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직원, 증시 투자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개별법에 있는 유사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벌칙은 물론 이들이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

조치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원은 2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못하는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금융 관련 법률에 있는 벌칙 조항을 전면 검토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편드와 보험 상품을 파는 등 금융권역간 판매 장벽이 허물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판매 규제를 통합한 가칭 ‘금융상품 판매법’의 제정을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美 동물성사료 금지 ‘시늉만’?

EU·일본보다도 연령·부위 금지 ‘제한적’

30개월 이상 쇠고기 제한없는 수입 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에 따라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대로 다음달부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도 제한없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강화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발효가 된다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아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연령제한을 다 풀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EU·일본보다 연령·부위금지 ‘제한적’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간) 광우병(BSE) 위험

을 고려, 모든 동물성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척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두개골·척수·등뼈·편도·안구·소장 끝부분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이 먹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척수·척추·소장끝부분 등의 SRM은 모두 제거, 소각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시행하겠다

고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 가지 종류의 SRM만, 그것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강화’ 약속만 받고 빗장 다 풀 셈 = 내용만 미흡한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도 문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선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를 풀되,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연령제한을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측이 약한 수준의 동물성사료조치를 ‘공포’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음달부터 연령제한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아무말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대체수단 아이핀(i-PIN) 도입 의무화... 위반엔 처벌 강화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또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의무화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이트 옥션의 해킹 사고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통신 및 인터넷사업자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사업

자가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침해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한편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 시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고 침해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 1천만원의 과태료를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드림이트	정규직 캐시 및 판매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62-574-8112
리바이스	현대백화점 리바이스 매장판매직 지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8	062-523-4560
김요하이텍	[전남당양관리지]생산관리 및 회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8	031-861-5300
㈜동방종합전기	정규직 영업직/기술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29	062-382-2114
이코인	인테리어 설계 분야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9	062-351-5777
캠벌리솔루션	성실한 영업관리 및 납품사원 급구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29	062-946-8200
여수수산유통	경력, 회계, 업무, 전포인력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30	062-267-7624
시몬드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관리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4/30	062-223-1234
제일기획	그래픽 디자이너 경력직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400~1600	04/30	062-385-3073
화인코리아	정규직 사원모집(연구개발/환경/생산/경리/운송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1-330-4523
삼성코스타코리아	웹디자이너, 섬유 제품 디자이너 구함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575-8877
송원 현대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계산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510-8013
삼성화학	개발부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03	062-951-8001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임직원 초빙	고졸/경력무관	8000~9000	05/06	061-286-5434

(광주지역에 512-6210 제공)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급증

지난해 2억여건 42% 늘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비세카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신용판매의 건당 이용금액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소액 결제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비세카드에서 발생한 10억4천여만건(57조2천300억원)의 평균 이용금액은 5만4천877원으로, 2005년의 6만6천116원, 2006년의 5만9천261원에 비해 점차 소액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만원 미만 결제는 2억100만건으로 2006년의 1억4천200만건에 비해 41.5%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결제건수에서 1만원 미만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19.4%로 늘어났다.

성별과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1만원 미만 결제는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주도했다.

소액결제가 발생한 가맹점을 업종별로 분류해본 결과 가장 많은 결제가 발생한 업종은 편의점·슈퍼마켓이었다.

유통업체 상반기 채용 ‘붐물’

롯데 600명·신세계 180명·현대 50명

상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들도 잇따라 공채에 들어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600여명을 공개채용한다.

이번 공채는 식품, 유통, 관광, 중화학, 건설 등 6개 업종에서 34개 계열사에 걸쳐 진행되며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올해 8월 졸업예정자면 나이와 전공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12일간 그룹 채용 홈페이지(http://job.lotte.co.kr)를 통해 접수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계열사별 실무진을 상대로 한 1차 면접, 그룹 임원들이 진행하는 2차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선발된다.

신세계도 상반기 인턴사원 130명과 전역장교 신입사원 50명 등 모두 180명을 뽑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한다.

모집 계열사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인터내셔널 등이다.

인턴사원은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내년 2월 졸업예정자여 지원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1차로 선발되며 여름방학 동안 5-6주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친 뒤 11월 중순 최종 면접을 통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다.

현대백화점 그룹도 5월중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H&S 등 계열사에서 일할 신입사원 50명을 채용한다.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재학생, 전역장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며 학과성적에 평균 3.0점 이상, 토익점수 800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